

나무 타고 숲에 귀기울이며 나를 발견하는 '꿈놀자학교'



지난 6일 곡성군이 올해 꿈놀자 학교의 첫 숲 교육으로 트리클라이밍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민선 7기 핵심시책 중 하나로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창의교육과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

곡성군, 올해 첫 숲 교육으로 제월섬 트리클라이밍 시작 자연 활용해 창의성과 감수성 키우는 행복한 교육 제공

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곡성 꿈놀자학교(이하 '꿈놀자학교')다. 지역의 숲과 섬진강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창의교육 배움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올해 꿈놀자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되다가 6일 제월섬에서 진행된 트리클라이밍으로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곡성군은 석곡 반구정 습지에서 인기리에 트리클라이밍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곡성꿈놀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첫날에 1시간도 채 안되어 조기 마감됐다.

이번을 시작으로 곡성군은 전국 초등생을 대상으로 6월 20일까지 총 9회의 트리클라이밍을 진행한다. 운영은 전문 아보리스트로 구성된 (주)시소에서 맡았다. 참가

자들은 맨손 클라이밍, 가지스윙 등 밧줄을 이용해 나무에 오르는 활동을 하며 나무와 환경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한편 곡성군은 곡성교육지원청 및 지역 학교들과 협력을 통해 2020학년도 초등 정규교과과정에 트리클라이밍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곡성 지역 초등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제월섬

으로 나가 숲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와 지역이 긴밀하게 연계해 혁신적이고 살아있는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숲 교육에 참여한 초등 교사 A씨는 "곡성군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숲 교육이 아이들에게 도전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교육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곡성꿈놀자학교 숲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미래교육팀(061-360-8258)에 문의할 수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군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 민원 발생 시 빠르게 설치 가능

장성군이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5대를 설치한다고 전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민원 지역에 즉시 이동 설치가 가능해 민원 발생 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은 내장되어 있는 태양광 배터리로 충당하며, 야간 촬영 및

동작 감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 투기를 감지하면 4개 국어로 제작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안내방송이 자동 재생된다.

앞서 군은 불법 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개소 당 운영 기간은 최대 3주며, 설치 장소는 읍면의 신청에 따라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엘로우시티 장성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비대면 위생관리 확대

동영상 통해 위생관리·식품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송미·동신대 교수)는 긴급 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생 지원 물품

을 비대면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센터는 어린이 급식소의 올바른 소독 관리를 위한 염소 소독제, 염소 테스트페이퍼, 용도별 고무장갑을 제공한다.

센터가 제작한 '올바른 소독 방법' 2종과 '올바른 손 씻기' 동영상 등을 통해 개인 위생관리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비대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송미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순회 방문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급식소 등록 시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물품 지원은 집단 급식소를 우선으로 등록시설에 제공할 예정이며, 소독 관리 프로그램 'Healthy&Safety 소독관리'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건강마을 조성 사업 '박차'

5개 마을 선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은 올해 5개 마을(담양읍 연화촌, 금월마을, 고서 덕촌마을, 용면 두장마을, 수북면 원대방)을 선정해 주민참여 건강마을 조성사업

을 추진한다. 주민참여 건강마을은 주민이 주체의식을 갖고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자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기초검진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주민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마을별 건강증진 및 행태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영역별 보건교육, 구강관리, 금연클리닉, 영양, 자기혈관 숫자알기, 치매검진 및 인지재활 훈련 등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해 건강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건전한 여가활동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예교실, 원예교실 등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담양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등 인센티브 확보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담양군은 지난해 재난관리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6개 분야 34개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안전교육 및 문화운동 추진 실적,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적,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실태,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

평범한 속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